

## 캐나다에서 보내온 한 통의 서신이 주는 충격과 감동

박 영 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1997년 1월 15일 우리 나라의 환경운동체인 녹색연합에 캐나다의 에너지조사연구재단(Energy Probe Research Foundation)으로부터 한 통의 긴급서한이 날라들었다. 이 단체는 18000명의 회원을 가진, 안전하고 청정하며 경제적인 에너지 대안을 연구하는 순수민간기구이다.

그 서신은 1월초에 장 크레티앙 캐나다 총리가 캔두(CANDU)원자로를 판매하기 위한 핵산업계의 대표들도 포함되어있는 400여명의 통상사절단을 이끌고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것의 진의를 알려주는 내용이었다. 이 사절단이 목표로 하는 이번 순방에서의 통상계약의 총거래액은 20억불인데 그 중 15억불을 원자로 판매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신에 따르면 그 기대의 표적은 우리 나라와 태국, 필리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캔두형 원자로 이미 자국에서 그 안전성, 경제성, 청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건설이 중지되어 있는 모델이라는 점이다.

재단의 사무총장인 톰 아담스(Tom Adams)에 의하면 캔두형 원자로를 원자로 노심에서 나오는 초고온의 중수(重水)를 증기발생기로 보내는 냉각수 배관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부식되고 있어서 발전소의 예상수명인 30년까지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보수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가 하면 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한때 캐나다 핵발전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630MW급의 포인트 리프로(Point Lepreau) 핵발전소는 1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기술적인 결함에 시달려야 했고 1995년에는 보수를 위해 8개월간 가동을 중지해야만 했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전문가팀에 의해 원인규명과 대책 모색 중에 있다.

아담스 총장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캔두형 원자로를 구입하려는 국가들이 과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냐는 것이었다. 그는 안전성과 경제성의 한계가 있는 캔두모델을 동남아국가들에게 판매하려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간주하고 캐나다 국내법 저촉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했다.

캐나다는 1996년 11월 중국에 2기를 판매하기 이전에 벌써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그리고 우리 나라에도 캔두형 원자로를 판매했다. 우리 나라가 수입한 캔두형 원자로 1호는 1983년에 가동하기 시작한 월성핵발전소의 1호기이다. 그리고 '97년 가동예정인 2호기, '98년 3호기, '99년 4호기도 캔두형 원자로이며 앞으로 건설예정인 5호기, 6호기도 캔두형으로 협상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 긴급서신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문제이다.

1호기가 '83년에 가동되어 '94년에 이르기까지의 10년 동안에 28회의 가동중단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2호기 시험 가동 중에 중수가 유출되어 또다시 물의를 빚은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문제를 둘러싸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 핵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담스 총장의 고발서신은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80년대 말 영광원전지역에서 일어난 무너아 탄생과 핵발전지구의 기형가축 출현문제, 국제적으로는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에서 일어난 참변 등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한국전력과 관련 기구에게 묻고 싶다. 캔두형 원자로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가? 캔두형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정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는가?

나라의 경제 문제를 송두리채 무너뜨리는 작금의 한보사태와 앞서 있었던 한전 비리 사건 등으로 미루어 정부에 대한 불신의 높은 깊이만 간다. 결국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진실을 알려 준 것은 캐나다의 양심적인 민간단체의 국가 이익을 초월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오늘날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며 정치, 경제,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구가 설치되며 빈번한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세계는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날로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국제회의가 국가이익을 초월할 수 없는 국가대표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활로는 바로 민간단체(NGO)의 역할이다. 민간단체의 특성은 국경, 국적, 계층, 계급의 장벽을 넘어서 국익에 얽매임 없이 연대, 주장, 행동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캐나다의 에너지조사연구재단은 바로 이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환경운동단체들이 우리 나라를 핵폐기장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도 바로 국제환경·시민단체들과의 유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유엔이 <유엔환경개발회의> 준비과정에 <국제추진위원회-IFC(International Facilitation Committee)>를 구성하고 민간단체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으로 민간단체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해낸 것도 지구환경문제해결의 민간단체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외교의 장으로 전락한 '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의 결과는 국가대표회의와 민간단체들의 지구포럼'92이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각각 별개의 <선언문>과 <의제21>을 작성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유엔관련회의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건전한 발전에 민간단체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되었다.

지난 2월 26~28일 경주상공회의소에서는 녹색연합과 경주핵발전소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캔두형 원자로의 결함과 경주핵발전소문제에 대한 한국·캐나다 시민단체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대표들이 당당하게 캐나다 정부와 핵산업체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우리 국민이 이미 70년대 말부터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과, 중국의 핵실험 등에 의해 핵노출의 위험지구에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에 이러한 양심세력들이 건재하는 한 현세대인들은 물론 미래세대까지 살만한 지구환경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행정부의 환경정책의 발전

환경정책의 발전

# (주)환경공업신문사

환경공업신문 · 월간환경 21

131-2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36-50 / 전화(02)436-8000 / 전송(02)432-8004

환 공 신: 제97-13호

시행일자: 1997. 3. 11.

수 신: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참 조: 박 영 숙 소장님

|   |     |   |  |
|---|-----|---|--|
| 선 |     | 지 |  |
| 점 | 일자  | 시 |  |
| 취 | 시간  | 간 |  |
| 수 | 번호  | 제 |  |
|   | 처리과 | 공 |  |
|   | 담당자 | 란 |  |

제 목: 창간특집 원고청탁의 건

신민일보장

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공업신문』이 어느덧 창간 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월간 환경21』은 창간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업신문사는 지난 8년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은 정기구독자가 확보되었으며, 전국의 서점과 홍익회를 통한 절도, 전철역 등에서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3.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내주신 귀하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준비중인 창간 특집호에 게재할 귀하의 원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원고내용은 평소 귀하가 가지고 계신 국내환경 전반에 관한 소견중 한부분을 택하여 2백자 원고지 15매 전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원고접수는 3월 25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월간환경 21 대표 박정옥

(주)환경공업신문

발행인 이 광 재

